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 연구
- 지식인 여성의 자기 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 양상

박 지 영*

차 례

1. 머리말－교지 『이화』 연구의 필요성
2. 교지 『이화』에 대한 실증적 고찰
3. 교지 『이화』의 정신적 기반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표상
   3.1 금욕주의적 ‘인격’의 완성과 엘리트 의식
   3.2 ‘여성성’의 수용과 ‘슈퍼우먼’의 강박
4. 교지 『이화』에 드러난 지식과 이념의 형상
   4.1 다양한 근대 지식의 습득과 그 양상
   4.2 ‘탈주의 선’으로서의 ‘문학’－주체적 존재성에 대한 고뇌
5. 결말－의의와 한계

국문초록

본고는 교지 『이화』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1929-1938) 최고의 인텔리 여성들이 지향했던 자기 정체성과 그들이 수용하고 재생산했던 지식과 이념의 형상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고찰이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적인 다른 매체에서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고, 반면 교지 『이화』는 여학생이 주체가 되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어 꾸려가는 매체였다. 그래서 교지 『이화』는 식민지 시대 제도 교육이 당대 인텔리 여성들을 어떻게 구성해갔으며, 또 주체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지 『이화』의 필자들은 소수이지만, 이후 『여성』, 『삼천리』, 『조광』 등 30년대 주요 매체의 필자로 활동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교지 『이화』는 한국 근대 여성들이 지식을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서 한국 근대 여성 지식 수용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화』를 살펴보면, 그들은 기독교 여성 교육이라는 환경 아래 금욕주의적 인격과 자기 희생적 태도를 지향하였다. 또한 이화여전 여학생들은 최고 여성 교육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만큼 민족(사회)에 대한 의무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졌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전위적 지식의 생산과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화』에 실린 수준 높은 글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지 『이화』를 통해서 가정학, 과학, 문예, 사상 등 다양한 지식체계를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갔다. 그러나 지식 생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유로운 열망들은 3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성을 규정하는 생물학적 담론과 가정학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보수적 성적 담론과 현모양처 사상으로 굴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사회적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도 버리지 못해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지식을 수용하는 태도는 그다지 주체적이거나 생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화』에 실린 글들의 내용은 첨단의 근대적 지식이기는 했지만, 그 글쓰기 방식은 단지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화』에 실린 '가정학'이라는 여학교 특유의 학문적 경향은 『연희』, 『신흥』 등에서 나타나는 이념이나 민족주의 문화담론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이는 이미 1930년대 학문적 연구에도 성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 수준이나 욕망이 적어도 남성 지식인들 못지않은 다양성과 깊이를 담보하려고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 특히 문학란의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

온다. 문학에는 논설문에서는 드러났던 순응적 담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존재에 대한 치열한 모색이 돋보였다. 이는 식민지 시대 문학이 갖는 진보성을 증명해주는 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30년대 지식인 여성들은 다양한 주체적 욕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려고 애썼다.

핵심어 : 『이화』, 이화여전, 인텔리(지식인) 여성, 근대 지식의 수용과 재생산, 이념, 자기 정체성, 욕망, 금욕주의, 계몽 의식, 현모양처 담론, 가정학, 글쓰기, 문학(란), 진보성

1. 머리말 - 교지『이화(梨花)』연구의 필요성

본고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교지『이화(梨花)』(1929-1938)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 당대 최고 인텔리 교육의 수혜자인 지식인 여성들이 지향했던 자기 정체성과 그들이 수용하고 재생산했던 지식과 이념의 형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대 '이화여전'은 유일한 여자전문학교로서 당대 최고의 여성인텔리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었다. 고로 이 여학교 학생들의 의식세계를 살펴보는 일은 식민지 시대 고등여성교육의 실상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인텔리 여성들의 지식 수준과 세계관을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식민지 시대『교지』연구의 중요성은 밝혀진 바 있다. 이 두 연구[1]는 모두 식민지 시기『교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지금과는 달리, '당

1) 박헌호,「식민지 시기 校誌의 위상과 지식의 주체화-『연희』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중점과제 학술발표회,『한국 근대사회의 변동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제2과제;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발표문, 2005. 6. 18, 오문석,「식민지시대교지(校誌) 연구(1)」,『상허학보』8집,

대 지식인의 정신과 내면'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기에는 매체별 위상이 분명히 구획되지 못했고 또 분야별로 전문 간행물이 정착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지』는 이를 대신하여 신문, 잡지, 동인지 혹은 학술지의 기능을 대신해 주고 있었다. 실제로 경성에서 발간된 전문학교 이상의 교지는 어엿하게 시내 서점에서 팔렸고 심지어 『연희』의 경우 광고까지 냈다고 한다. 그리고 당대 교지의 중요성은 이 매체의 필자였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단지 '학생'이라는 지금의 위치와 달리 '유학생그룹과 더불어 근대 지식 체계의 직접적인 소비자이자 전달자로서의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데에도 있다[2]. 그래서 교지는 당대의 어느 매체보다도 높고 고른 수준의 지식인 필자들이 활동하여, 전문성이 담보된 드문 매체였다.

그리고 『이화』, 『연희』, 『숭실』 등 당대 교지 지면의 핵심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문예면이었다. 이를 통해서 박용철, 박영준, 윤동주(이상 연희), 김현승(숭실) 등의 습작 글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볼 때 당대 '교지'는 문학청년들이 높아가는 문단의 벽을 넘기 전 전초기지로 사용했던 공간이기도 했다[3].

교지 『이화』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화』는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예비지식인들이 활동하는 지면으로 이를 통해 당대 인텔리 여성들이 수용하고 스스로 생산하고자 했던 지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알려진 대로 식민지 시대에 여성들은 지식의 생산자는 물론 수용자조차 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활동은 매우 소중한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화』의 자료적 가치는 『신흥』이나 『연희』 등 다른 전문학교 교지와도 또

상허학회, 2002 참조.

2) 박헌호,위의 글, pp.105~106 참조.

3) 오문석, 앞의 글.

다르다.

왜냐하면 당대 지식인 남성들의 경우는 굳이 교지가 아니더라도 재학 중 혹은 향후에 자신들의 의식세계를 펼쳐놓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검열이라는 식민체제의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전문학교 출신 남성들은 졸업 후에 매체의 주재자로 주요 편집진, 혹은 집필자로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는 다르다. 여성들은 작가 혹은 기자로 활동할 기회[4]는 있었지만 '여류'라는 이름으로 배제되었고 더구나 매체의 주도자가 될 기회는 거의 없었다[5].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신여성』, 『여성』, 『신가정』 등 여성잡지들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편집자가 남성들[6]이었기 때문에 당대 여성들의 글은 편집진의 의도된 기획하에서만 수록될 수 있었다. 물론 『이화』의 경우도 지도교수였던 김상용, 이은상, 이희승 등의 영향력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매체의 특성상 이들의 입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게다가 졸업 후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박마리아, 김자혜 등 졸업생들의 글도 수록되어 있어 『이화』는 재학생을 넘어 당대 지식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였다.[7] 그래서인지 『이화』에는 여타의 매체에 실린 여성들의 글에서는 보기 힘

4) 당대 여성작가들은 거의 기자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숙,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 -1920~30년대 여기자(女記者)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 2005 참조.

5) 이러한 점에 관한 논의는 이미 증명된 바 있다.(대표적으로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13집, 2003,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공개장과 좌담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6, 2004 참조)

6) 잡지 『신여성』의 편집자는 방정환, 『여성』의 편집자는 방응모, 『신가정』의 편집자는 이은상, 변영로였다.

7) 『이화』에 실린 졸업생 활동 현황을 보면, 이화 여전 졸업생들은 교사, 의사, 예술인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결혼 후 가사일을 돌보았다. 그러므로 문필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졸업 후에 글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글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교지 『이화』가 그들에게 지식에 대한 욕구,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풀어내는 데 얼마나 유효한 지면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화』의 편집체제의 반이상을 점유하는 문학작품에는 新詩, 시조, 소설, 수필 등 여러 장르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들의 습작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예비작가였던 모윤숙, 노천명, 전숙희, 정충량 등의 습작기 작품이 이 『이화』에 실려 있다.

그리고 『이화』는 1929년에 처음 발간되어 38년까지 발행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이화』는 문화통치기가 종결되고 점차 파시즘화되어 가고 있는 식민체제하 1930년대 지식인 여성들의 의식세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1920년대 '신여성' 연구를 넘어 식민지시기 여성연구의 전체적인 상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 '신여성'은 어떠한 면에서 살펴볼 때, 근대적 교육제도가 만들어 낸 하나의 새로운 '주체상'이다. 초기 여성 유학생들이 만들어낸 신드롬에 가까운 '신여성'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장안의 여학생들은 질투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1920년대 '신여성'은 곧 '여학생'이었다'[8]라는 등식도 과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신여성 연구에는 당대 여성교육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나 여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지에는 이화여전 학생들의 활동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당대 여학생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산보고서이기도 하다. 이미 여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9], 본 연

8) 이희경, 「1920년대 "여학생"의 사회적 표상-잡지 『신여성』을 중심으로」-『한국교육연구』 10집, 2004, p.56 참조.

9) 대표적으로 이희경, 위의 글과 전언후, 「일제시기 여학생 의식 연구」, 『이화사학연구』 29, 2002 등이 있다.

구는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1930년대에는 이미 본격적으로 제국의 신민화 교육의 실시되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할 때, 곧 이러한 제도하에서 의식세계를 형성해가는 지식인 여성들의 모습을 고찰하는 것은 근대 초기 신여성 신드롬과 천황의 딸임을 자처했던 일제말기 지식인 여성들의 굴절된 삶 사이의 역사적 빈공간을 메꾸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이화』에 실린 글들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 교지『이화』에 대한 실증적 고찰

『이화』의 발간주체는 '梨花女專 '學生基督敎靑年會 文學部'이다.『이화』3집에 실린 기독청년회연혁에 의하면 청년회는 1926년 창간된다[10]. 이 청년회에는 1931년 당시 문학부, 농촌부, 종교부, 체육부, 재무부, 음악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문학부가『이화』편집의 주체이다. 문학반은 년중 1차 잡지를 발행하는 '문예구락부'와 매2년 1회 상연하는 '劇班', 각종 잡지를 강독하는 '도서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활동상황으로는 교지 편집 이외에 "일반 학생을 위하여 수시로 구술대회 토론회 웅변대회를 개최하며 또 유명하신 선생님을 초대하여 시사문제 학술강연회를 열어 일반회원에게 상식을 보급"시킨다고 한다[11].

---

10) 이 글에 의하면 기독청년회는 1904년 이화학당 학생으로 조직된 以文會라는 '모듬'에서 출발한다. 이 모임은 대개는 교내 학생을 상대로 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1922년 이화고등과와 연합한 기독청년회가 창립되었고 25년 이화여전이 인가를 받은 후 1926년에는 전문과생으로만 조직된 청년회가 이전의 조직에서 분리되어 창립되었다고 한다.(『이화』3집 p.183 참조)

11)『이화』7집의 기록에 의하면, 1936.6.에 김환태와 박팔양을 초빙하여 문예강연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이화』7집, 1937.6, p.155 참조)

이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을 역대 문학부장으로는 박겸숙, 모윤숙, 최이권, 崔禮順, 崔元福 등이 있고, 노천명 등이 부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게다가 이미 이들의 활동 연혁을 살펴보면 이들 조직은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지향하고 있었다[12].

이들이 주체적으로 발간한 식민지 시대 『이화』의 발간사항은 다음과 같다[13].

권호	면수	발행일	편집겸 발행인	발행소	인쇄인	인쇄소	총판매소	가격
1집	126	29.2, 10	朴鎌淑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鄭敬德	基督敎 彰文社	彰文堂書店	40전
2집	161	29.12.1.	崔直順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鄭敬德	基督敎 彰文社	彰文堂書店	40전
3집	189	31.3.4.	連榮嬅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鄭敬德	基督敎 彰文社	東光堂書店	35전
4집	155	32.10.31.	崔禮順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金鎭浩	한성도서주식회사	東光堂書店	40전
5집	85	34.5.31.	朴鳳子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金鎭浩	한성도서주식회사	東光堂書店	20전
6집	131	36.3.1.	李寶境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金鎭浩	한성도서주식회사	東光堂書店	40전
7집	179	37.6.12.	崔元福	학생기독교청년회문학부	金成均	한성도서주식회사	東光堂書店	40전

『이화』는 1929년 2월에 1집이 출간된다. 『이화』 1집에 실린 청년회 명부에 의하면 회장은 全壽鎭, 부회장은 蔡乙孫, 문학부장에는 朴謙淑,

12) 실제적으로 이들은 '婦女와 無産兒童에게 國文, 算術, 兒童敎育法, 家庭處理法 等을 가르키며 特別히 學費全部를 貸與하며 無産兒童을 工夫식히는 事業'을 추진했던 '농촌부'의 활동이나 교지 발간 강연회 개최 등 문학부의 활발한 활동상황을 통해 짐작해보면 결과야 어떻든 梨專 학생들의 교외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基督靑年會 沿革」, 『이화』 3집, 1931.4 참조)

13) 아쉽게도 필자는 『이화』 8집을 구하지 못했다. 다음에 보강하도록 한다.

문학부원으로 崔直順, 毛允淑, 崔以權이 2개년 이사로 되어있다.[14] 서지에도 박겸숙이 편집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박겸숙, 최직순이 주체가 되어 이 매체를 발간했을 것이다.

『이화』는 편집후기에 의하면,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필자로 참여한다. 좀 더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필자는 수록 회수별 차례로 모윤숙, 노천명, 주수원 등인데 이들은 역시 기독청년회 출신 여성작가들이다. 그 외 졸업생이자 교수였던 김활란이 통틀어 가장 많은 회수를 자랑하며 김자혜 등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화의 졸업생들의 참여도 무시할 수 없다. 김활란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지도교수[15]들의 글은 드문데, 이는 그만큼『이화』가 학생들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꾸려질 수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힘입어서인지,『이화』는 식민지 시기에는 29년부터 39년 발행 정지되기 이전인 1938년 8집까지 발행된다. 표에서 드러난 대로 거의 1년마다 1권씩 발행하려고 애쓴 듯하다. 가격은 평균 40전으로 시판되었다. 몇 부나 팔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화』 1집이

14)『이화』 1집, 1929.2. pp.186~189 참조.

15) 발간에 관여했던 선생으로 김활란은 1집, 4집-5집에 고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상용은 2집부터 거의 모든 집에 고문으로 기록된다. 이희승은 4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은상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교지에서 언급된 것은 없으나『이화80년사』에서 지도교수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백낙준, 金合羅가 1집의 고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태준인데 이태준은 공식적으로 교수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집에서 서무외사부 선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7집에서 현상문예작품발표 지면에 심사위원으로 김상용, 이희승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이화』 편집 후기에는 '두 분 이선생님'(4집), 혹은 '김과 두 분의 이 선생님'(6집)이 수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론된 세 명의 선생은 7집「편집을 마치고」에서 김상용, 이태준, 이희승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이들로 판명된다. 그리고 항간에는 정지용이 노천명의 梨專 은사였다는 소리가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지용은 해방 이후에나 이화여전에 근무하게 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김상용은 오랫동안 청년회 고문으로 활동하였는데,『교지』의 내용과 편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직도 백여권 남아있으니 원하시면 본회 문학부로 청구하십시요'[16]라는 광고가 『이화』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100부 이상 인쇄를 하였다는 것과 초기에는 판매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지도 도청 학무과 검열을 거쳐야 발표하게 된다'[17]는 모윤숙의 언급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교지도 검열의 대상이었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18]. 『이화』의 편집후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거의 매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도 죄송스러운 것은 셋재 梨花를 苦待하고 계신 여러분끠 벌서나와 뵈옵지못한 일임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일즉이 世上에서 오려고 하였으나 手續이 困難하였고 또 힘이 不足하여 充實한 內容을 갓지 못하고 두루뭉수리가 되어 늣게야 여러분을 뵈옵게 된 것은 북그럽고 미안스럽슴니다. 그러나 잘못된 點은 널리 理解하여 주시고 좀더 큰 希望에서 좀더 充實하게 나올 앞에 梨花들을 生角하시고 慰安을 어드시기 바람니다.[19]

여기서 '수속의 곤난'이나 '힘의 부족'이 검열을 상징하는지는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단지 원고 모집이나 편집상의 문제 혹은 필자의 수준을 탓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열의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 저어했던 30년대 검열 당국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발간수속의 곤난'은 검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두루뭉수리'란 결과 역시 검열을 피하기 위한 필자들의 내적인 자기 검열이나, 실제 검열의

16) 「광고」, 『이화』 2집, p.102 참조.
17) 모윤숙, 『나의회상-폭풍 속에 피는꽃』, 중앙출판공사, 1987, p.43 참조.
18) 박헌호, 앞의 글 참조.
19) 「편집뒷말」, 『이화』 3집, 1931.3.

결과일 수도 있다. 아마 1928년 시도했던 『이화』의 발간이 늦어진 것도 이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20].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발행면수는 5집을 빼고는 거의 100~200면으로 여느 잡지의 두께만큼은 된다. 전체적인 편집 내용은 주체가 '문학부'였던 만큼 논설을 포함한 일반기사와 문학란이 거의 1:1.5 정도의 비율로 편재되어 있다. 이 역시 당대 지식인 여성들에게 '문학'이 중요한 자기 표현의 場으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이 교지 『이화』를 발간하게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지면에서 서술된 바는 없다. 단지 김욱제의 「축사」에서 '挽近엔 學校誌 發行이 거의 流行이 되다십히 各專門學校는 물론 中等學校에까지도 업는 處가 幾希한지라. 朝鮮에 唯一無二한 女子專門學校인 本校로서 저같은 長久한 歷史를 가지고 當今 一冊의 學報를 發行치 못함은 甚히 遺憾으로 思'한다는 구절이 있어 당대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지를 발간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화』 창간호에 연희전문학교 청년회의 축사가 실려있는 것을 보면, 당대 전문학교 학생들간에는 교류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당대 최고의 인텔리교육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梨專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 자신들도 매체를 발간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100면이 넘는 지면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여학생의 글쓰기의 역량이 성장해 있었다는 점도 발간에 추진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한 이화여전 여학생들이 지향하는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것은 당대에는 매우 드물었던 고학력 인텔리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토대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

20) 『연희』가 창간 당시 1집부터 압수를 당했던 사정은 여기에 신빙성을 더한다.

3. 교지 『이화』의 정신적 기반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표상

3.1 금욕주의적 '인격'의 완성과 엘리트 의식

교지 『이화』의 정신적 기반은 우선 발간 주체의 성격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다. 청년회 활동 연혁에 의하면 청년회의 창립 목적은 '일반회원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함양(涵養)하며 靈的生活에 있어나 외적생활에 있어서의 修養을 도모하며 회원의 사교적 행복을 증진케 하는데 있다'[21]고 한다. 즉 이 모임은 기독청년회이었던 만큼 기독교적 정신세계의 추구와 인격도야, 그리고 회원간의 사교를 그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화』의 필자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도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 형상과 그리 멀지 않았다.

『이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기독교 담론[22]의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에게 '『基督 안에 知와 學識의 寶庫가 잇다』는 명제로 그리스도와의 친근함으로 형성되는 人格을 수양하게 하는 것'이었다.

> 참된 人生에 本意참된 人生의 目的을 찾기 爲하여 眞理와 합치하고 矛盾없는 참 생활에 持續者가 되긔 위하여 精神의 統一을 支配하는 宗教的 信念을 먼뎌 머리의 주입식히지 안을 수없는 것이다. ...生活을 지배하는 精神이 건강함에야 비로소 우리의 理想한 目的의 到達할 수 잇슬

21) 『이화』 3집, 1931.3. p.183 참조.

22) 『이화』에 실린 종교에 관련된 글 목록은 다음과 같다.

金福順	宗教教育의 必要	1집	1929.2.10
盧天命	基督教人의 社會 異想	2집	1929.12.21
申載德	나의 基督觀	3집	1931.3.4
一石	祈禱論	4집	1932.10.31
任貞爀	自然과 宗教	4집	1932.10.31
張起善	善과 聖을 찾어	4집	1932.10.31
平井政愛	猶太民族과 聖書文學	5집	1934.5.31
S. W.	基督의 倫理觀	6집	1936.3.31

> 것이다. 그리고 나(我)라는 自我를 覺醒하는 때의 自我以外에 無限의 權力者(神)을 向하여야 할 것이며 不完全한 自我를 니저서는 안될 것이다[23].

이 글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 '眞理'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참된 人生에 本意, 참된 人生의 目的을 찾기 爲하여', '矛盾없는 참 생활에 持續者가 되긔 위'한 것, 즉 참 자아를 찾아가는 길과 통한다. 필자에게 '자아를 각성'하는 길은 종교,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근대 초기 나혜석이 기독교를 '여성해방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였던 것[24]과도 다소 다른 방식이다. 여기서 종교에 귀의하는 일은 자아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 혹은 종착역이 되어버린다. 그만큼『이화』에 있어 종교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를 좀 더 명증하게 살피기 위해 이화여전의 교장 아펜셀러의 축사를 살펴보자.

> 梨花는 큰 靈的奉仕로써 조선에 최상의 奉仕를 提供키만 바랄뿐이다. 敎育은 人格에다 基礎를 定할지며 그 人格은 그리스도와 親近함으로 形成하나니『基督안에 知와 學識의 寶庫가 잇다』이 人格이 不足하면아모리 총준(聰俊)하고 단성(丹誠)이 잇을지라도 그의 奉仕는 사람의게 深苑한 影響을 못줄터이며 결실치 못할 것이다. ...朝鮮의 鬪爭은 物質的이 아니며 個人과 個人的 원수(怨讐)를 對抗함에 잇지안코 全世界를 拘束한 年久年心의 罪惡곳 蒙昧, 迷信, 貪慾, 淫蕩, 飮酒,嫉妬 等을 打滅할 것이다. 女子는 過去에 잇서서 最善을 爲하야 有力한 使役者가 되엿섯다. 오

23) 모윤숙,「종교교육의 필요」,『이화』1집, p.31 참조.

24) 김미영,「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21, 1994 참조.

> 날은 여자의 機會가 廣大하다. 梨花의 女子들은 十字旗를 놉히 들며 이로써 그의 最高榮光을 삼고 十字架의 犧牲愛의 勢力으로써 勝戰할진뎌[25]

거의 축사 구실을 하는 아펜셀러 교장의 이 글은 학교 이화의 교육이념을 응축해서 보여준다. 이화는 '조선에 최상의 봉사를 제공'하는 선진적 여성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을, '전세계를 구속하는 죄악, 몽매, 미신, 탐욕, 음탕, 질투' 등 후진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梨專 교장의 시혜적 시선은 『이화』 전편에 걸쳐 필자들을 통해 또 한 번 재현된다. '거룩한 人類愛 실현[26]'이라는 박애주의적 태도는 이화여전 여학생들의 의식세계에 근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문제이다.

> 낙엽은 우리에게 희생의 붉은 정신을 말업시 속삭이고 간다. 이거시 우주에 신비다. 자연도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과 죽엄으로 현실을 弔哀한다.[27]

이 글의 필자는 낙엽의 희생정신에 빗대어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실에 행복'을 희생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안락'과 '허위생활'을 극복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기꺼이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는 것, 즉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화』의 학풍에 충실한 여학생들의 理想的 생활의 전범이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가치관은 자신들과 타자들을 구분짓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

25) 亞扁薛羅 校長, 조정환역, 「梨花와 女子敎育」, 『이화』 1집, pp.3~6 참조.
26) 「머리말」, 『이화』 2집, p.1 참조.
27) ㅁㅇㅅ, 「지나가는 가을」, 『이화』 p.73 참조.

> 다만 구여성보다 다소문자를 안다하야 스스로 거만하고 약간의 상식을 가젓다하야 스스로 높은 체하고 몸의 맨들이를 달리하야 가장 뜻잇는 신여성인체하는 것은 참다운 신여성 곳 오늘날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지하는 새로운 여성이 않이다. 다만 신여성의 탈을 쓰고 신여성의 임내를 내는 구여성도 못되는, 내여바릴 여성이다. 소위 신여성으로 자칭하는 여성은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다음으로 비록 녯부인의로되 삼천지교로 각수천추한 맹모 갓흔 구여성이 잇섯슴과 새것을 배홧노라 새것을 아노라하되 오히려 허영과 타락의 심연에 빠진 가련한 새 여성이 잇슴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야 고미의 아름다운 부덕을 겸하고 동시에 새지식을 새문견에 잇서 안으로 능히 일가를 다사리고 밧그로 능히 사회에 봉사함이 잇는 씩씩한 유위의 여성이야말로 진실로 신여성다운 신여성임을 알어야 한다[28].

『이화』에 실린 필자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허영심과 일시적 충동에서 경망한 행동을 흔히하는 가증할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자기일개인만 불행히 될 뿐만 아니라 전여자계에 모욕을 드리는 예가' 된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신여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매우 낯익은 것이다. 1920년대 신여성에 대한 비난의 핵심이 바로 '사치'와 '허영'이었기 때문이다[29]. 이러한 담론은 1930년대『이화』의 필자들이 이러한 주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타자와 변별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고 싶어했다. 이는 근대 초기의 신여성들이 자기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타자로 삼았던 것이 '구여성'이었다는 점과도 비교되는 일이다. 대신『이화』의 여성들은 배운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

28) 김옥순,「내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책임」,『이화』3집, p.62 참조.

29)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신여성－매체로 본 근대여성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참조.

> ....新女性에게 請求할 것은...심각한 知的作用의 缺如다. 이는 그들에게 對하야 不當한 企待라고 할는지 모르나 그 言行이 좀 무게가잇고 內容이 豊富하였으면 한다. 果然 女性들이 深遠한 思想家와 發明家가 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추후에 硏究發表하려니와 模倣보다 創作을 좀더 留意하면 어떨가한다. 또한 좀 더 沈着하고 事業的 恒久心을 좀 더가지면 좋겠다. 現代의 文明은 男子의 文明이다. 이것이 누구의 탓이냐 女性의 先天的 缺如의 탓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女子도 男子처럼 奮鬪하면 可能할 줄 안다.[30]

그들이 지향하는 자신들만의 특수성은 바로 스승 김활란의 지적대로 '지적작용'이었다. 그들은 '사치'와 '허영'이 '심각한 知的作用의 缺如'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新女性에게', '언행의 무게와 내용의 풍부'를 요구하고 '모방'보다는 '창작'을 권한다.[31] 즉 객관적인 논리로 자기 정당성을 찾고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는 여성이 그들이 지향하는 주체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이전 여학생들이 추구하는 여성상은 금욕주의적인 윤리의식과 희생정신을 갖춘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인 여성이 기꺼이 '희생'하면서 '조선'을 위해 해야 할 소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3.2 '여성성'의 수용과 '슈퍼우먼'의 강박

『이화』의 주체들은 엘리트적 우월의식 만큼 책임감도 강했다. 이는 앞에서 박애주의, 희생정신을 강조했던 맥락과도 통하는 문제이다.

> 우리는 조선에 있어 중하고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잇스며 고등교육을 밧는 여자가 극히 소수이니만큼 귀하고 중한 것이다. 여기에 잇서서 우리

30) 김활란, 「콜롬보국제여성회합의 出席片感」, 『이화』 7집, 1937.6, pp.12~21 참조.
31) 김활란, 위의 글 참조.

> 는 남달은 각성과 남달은 이상을 갖지안으면안될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도덕의 표준과 문명의 정도가 그나라 여자에긔 속한 것이며 민족의 흥망도 그 여자에게 잇는 것이다.그러면 조선사회의 부도덕한 것을 바로 잡으며 남보다 이상의 문화를 걸설하며 새로운 희망에서 부흥됨이 뉘게 그 사명이 잇겠느냐? 물론 전조선인각개인에게 다잇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책임을 직접진 사람은 고등교육을 밧는 우리이다.
>
> ...참 세계를 움직일만한 큰 일은 남이 모르는 적고도 미미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곳 나의 힘이 밋치는대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나로써 나 할 것을 다하는 것이 되고 또 민중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 큰 일이 될 것이다. 고로 교육을 밧는 우리 중에도 고등교육을 밧는 우리, 우리의 중한 사명을 적은 것에 충실함으로 실현식혀보자![32]

『이화』지에는 조선 여성 혹은 조선여자의 책임, 의무에 관한 글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을 밧는 여자가 극히 소수'였던 점에서 발생하는 의무감[33]과 '우리 조선여자계를 완전무결하게 건설할 자는 다만 우리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긍지가 놓여있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바 그들은 '한나라의 도덕의 표준과 문명의 정도가 그나라 여자에긔 속한 것이며, 민족의 흥망도 그 여자에게 잇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어떤 면에서보든 매우 진취적인 태도이다. 그들의 역사적 사명감은 매우 투철했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조선사회의 부도덕한 것을 바로 잡으며 남보다 이상의 문화를 건설하며 새로운 희망에 부흥됨'이라는 목적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그 사명감의 크기에 비해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소 미약하게 느껴진다. 이 글의 필자는 '참 세계를 움직일만한 큰 일은 남이 모르는 적고도 미미한 것에서 시작

32) 최직순,「교육을 밧는 조선에 여학생」,『이화』2집, pp.32~36 참조.
33) 최직순, 위의 글 참조.

되는 것', 곧 '나의 힘이 밋치는대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 '나로써 나 할 것'을 하는 것이 '민중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 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나 할 도리만 다 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다소간의 논리적 비약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적고도 미미한 것', '나로써 나할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이화』의 주체들이 의외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데로 연결된다.

> 多事한 자는 행복자이니 자신으로 위시하야 가족 及사회를 건설하는 신성한 노동에 세월이 고고감을 헤아일 여가없이 열중함이 그 생의 보일 것이다... 其 一은 가정건설이라고 한다.여자의 책임을 망각하기보다도 녜부터 불너오는 「주부」라는 명사에 적으나마 새 의미를 加하여볼가하야 우리 여학생을 상대로하고 기록한다. ...이웃으로 더브러 친목하고 남편의 용기와 사랑을 북도드며 자녀를 온유의 인내로 양육하려할 때 여자에게 있는 모든 정의 세력을 앗김없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거이 輕忽히 생각할 수없는 책임이다. 가내에 화락한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자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신성한 신물이다. 하필 가정에서 뿐이랴? 평화를 갈망하는 전인류사회도 전보다 더 유력한 여자의 공헌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책임」이라 하였으니 그 거듭한 또 한가지는 무엇일가? 즉 조선여자일반의 지위를 향상식히는 것이다. ...조선일반여자의 지위를 향상식히랴면 교양을 중심한 계몽운동이 기 초보이요 여성문제해결은 자연히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조선여자를 향상식히는 일은 다소간교육을 받은 조선여자전부의 일이다[34].

이 글은 조선여학생, 곧 '신여자'가 맛땅히 해야 할 일로 두 가지를 꼽는다. 그 중 하나는 '가정건설'이고, 또 하나는 '조선여자 일반의 지위를

34) 김활란, 「조선여학생의 이중책임」, 『이화』 1집, pp.10~13 참조.

향상식히'기 위한 '교양을 중심한 계몽운동'이다.

이들 중 첫 번째 항목은 특히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지적인 여성상과 다소간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항목은 '고등교육'을 받은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포기하고 지향했던 점은 아니다. 그들은 가정을 건설하는 주체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 즉 스위트홈의 주체가 여성임을 강조한다. 가정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집의 세간으로 더부러 남자의 소유물되고 말기가 십중팔구'이므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주체화'라는 논리는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서도 계몽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여성'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이화』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35]이었다. 물론 그들이 여성들을 '교양'으로 계몽할 내용은 역시도 '여성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라는 것일 것이다.

결국 이들이 인텔리 여성으로서 해 내야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가정' 내에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도록 널리 '계몽'하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다. 바로 '슈퍼우먼' 강박증이었다. 그들은 이중적이게도 사회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 첫재로 가문을 빗내고 둘재로 사회를 영화롭게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여자와 남자의 명치와 직업이 다를 뿐이지 범백사위에 그 직분을 다함에 잇서 남자에게 뒤지지말고 다-하여야 할 것이다.
>
> 혹 일하는 중 여자의 체질에 맛지안코 체면에 썰이끼는 것이나 專門家

35) 김활란,「콜롬보국제여성회합의 出席片感」,『이화』7집, 1937.6, pp.12~21 참조, 홀법(屹法), 柳瀅基 역,「兩性의 特質」,『이화』1집, pp.18~19 참조.

> 의 손을 빌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天意에 合當하고 人生에게 利益되도록 그 처지여하 형편여하를 불문하고 힘써하는 것이 소위 신여성의 책임이오 또 이러케하는 것이 신여성이 구여성과 다른 점이라 한다[36].

이와 유사한 다른 글에서도 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동등한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실력 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다. 이들은 자각한 여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을 들었다.

실제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도 주어진 고등교육의 기회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주체적 요건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피할 수 없었던 이들은 경제적 능력과 가정 내의 여성의 길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만 그들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을 걸어야했다.

그런데 이 땅 인텔리 여성들의 이러한 슈퍼우먼 강박증은 비단 잡지 『이화』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시대 가장 대중적인 여성지 『신여성』 의 30년대 담론 역시 '과학적 모성'과 '슈퍼우먼 신드롬'에 강박되어 있었다[37]. 나혜석, 김일엽 등 근대 초기 신여성들이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존재성이 자초된 지점이 바로 모성성의 강요, 혹은 슈퍼우먼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탄생되는 곳이었다는 교훈을 상기하면서, 1930년대 여성들에게 모성성과 슈퍼우먼이라는 주체상은 어쨌든 그들

---

36) 김옥순, 「내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책임」, 『이화』 3집, p.62 참조.

37) 이러한 담론은 '신가정'이라는 근대적 핵가족 제도의 이상적 모델을 가정하고 만들어진다. 그리고 『신여성』 등 잡지에서 지식인 여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미경,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현모, 되고 싶은 양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3호, 2004, pp.75~93, 전미경, 「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권 2호, 2005, pp.95~112 참조.

이 사회적 주체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딪히고 넘어야 할 벽이었다. 초기 신여성들의 존재성은 유학생이라는 귀족적 토대에 기반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당대 사회와의 불화를 기꺼이 떠안는 데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나혜석의 「이혼고백서」의 당당함이 그 예이다. 그러나 30년대 여고보 출신의 인텔리 여성들은 이전보다 견고하게 공식화된 '제도' 내에서 성장한 존재들로, 그들의 선배들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성원으로 진입하는데 닥친 장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영리하게 넘어서느냐였다. 여기서 식민지 시기 인텔리 여성들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그런데 교지 『이화』에는 그들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역시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바로 '여성성'에 대한 과학적 담론과 '가정학'이라는 학문이 논리적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는데, 이 새로운 지식체계는 지식인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구성의 논리를 부여한다.

그들은 기꺼이 제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지식의 수용자가 됨에 따라 사회적 주체가 되고 싶은 욕망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길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또한 교지 『이화』에는 이러한 한계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면의 고투도 함께 존재한다. 교지 『이화』를 통해 1930년대 지식인 여성들은 지식의 주체로서의 여성, 그리고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되고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4. 교지 『이화』에 나타난 지식과 이념의 형상

4.1 다양한 근대 지식의 습득과 그 양상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교지 『이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매체와 달리 지적인 식견이 필요한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배운 여성으로서 이들이 지향하는 지적인 능력을 갖춘 여성이라는 표상은 교지 『이화』를 통해서 자기 표현의 장소를 획득한다. 그리하여 『이화』에 실린 글들은 당대 지식 수용의 판도를 추측할 수 있게 할 만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앞 장에서 설명한 '여성성'을 과학적 담론으로 재무장시킨 생물학적 담론이나 학문으로서 '가정학'의 등장이다. 생물학적 담론은 초기부터 존재하였다.

> 여성의 인내력은 남성에 비할바 아니다. 그에 반하야 남자의 용기와 强力은 남자의 자랑뿐만 아니라 여성의 남성을 흠모하는 요소의 일이라고 보겠다. ...여자는 압길을 눈물과 꾀로서 개척하여 나간다. 이는 여성의 특색이람보다 여성의 주위와 사정이 그러케 만드러준 것이다.
>
> ...여성은 남자보다 감정적이며 동시에 그의 표정은 남자보다 강하다...
>
> ...(중략).
>
> 여성해방운동의 목적도 女性男化보다도 오히려 여성을 완전히 만드는데 이슬 것이며 만은 준비와 지력을 합한 현모을 양성함에 이슬것이니 여성의 진가는 여성자체의 하업 혹 천직에 잇지 안타고 주창할 자 업슬 것이다. ...두랜박사는 이러게 말하엿다『우리의 신생활과 신문명이 여성의게 주는 신문제와 신곤란이 古昔노예생활보다 쉽지 안을 것이니 이 복잡하고 곤란한 신문제를 해결함에는 조박(粗薄) 한 남성의 이해와 동정을 구함보다 오히려 여성자신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자유를 고창하야엇은 그 여성의 기력이 여러 가지 곤난도 해결할수 이스리라고 밋는다. 그의 광휘잇는 미덕과 신속한 지능이 충실한 애호와 자애의 모성과

> 합치하야 이상적 여성을 완성할 정로를 발견 혹 창조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이 의미에이서서 우리는 양성의 우월을 논란함보다 오히려 양성의 특질을 발견수양하야 양성의 근성과 천직을 완전히함에 상호협조하야 더욱 고상하고 더욱 가치잇는 인격자들을 만들기에 용력할 것이다[38].

『이화』창간호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글「양성의 특질」에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남성성의 도식적 논리가 들어있다. 여성은 '인내력'이 남성은 '용기와 강력'이 강하고, 여성은 '눈물과 꾀'가 무기이고 '감정적'인데 비해, 남성은 이성적이라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논리는 '여성의 특색이람보다 여성의 주위와 사정이 그러케 만드러준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분법적 기준을 해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론은 결국 여성이 '여성성'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女子의 解放은 혹은 '행복이란 美 혹은 인격완성'과 함께 '吾人 각자의 천직을 다함에서만 차즐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성의 핵심은 바로 '자애의 모성'이다. 그리고 그 모성성은 지적인 능력과 결합할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필자는 '광휘잇는 미덕과 신속한 지능이 충실한 애호와 자애의 모성과 합치'할 때 '이상적 여성을 완성할 정로를 발견 혹 창조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종종『이화』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 이 논리가 과학적 지식이라는 외피로 지식인 여성에게는 매혹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39] 이러한 글에서 필자들의 태도는 '여성성'을 억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었다.

여성성의 담론을 생물학 등 지식(이론)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행동은 '지식인 여성'의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는

38) 홀법(屹法), 柳瀅基 역,「兩性의 特質」,『이화』1집, pp.13~19 참조.
39) 전미경, 앞의 글 참조.

다. 더구나 이처럼 현모가 되는 것, 모성성을 발휘하는 것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일이 된다는 논리와 만날 때 그들이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도 충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가정학'의 등장은 이러한 담론에 합리성을 더 해 준다.

1925년부터 이미 총독부에서 인증된 가사교과서가 등장하면서, '가정학'은 교육제도라는 합법적 공간 내에서 한국 여성들을 훈육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가정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지식인 여성이 된다는 증표가 되어 버린다. 가정학은 집안일을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해 내는데 이바지 하는 학문으로 가사 교과서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심어준다.[40]

그리하여 1929년 4월 전공으로서 가사과까지 생긴 이화여전 여학생들에게 가정학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구성해가는 데 근원적인 영향력을 끼친 지식이 된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듯 4집 이후에 영양학이나 아동교육 관련의 글[41]들도 보이는데 이 역시 가사과나 보육과 학생들의 글일 것이다.

이처럼 『이화』 실린 담론들에는 지식인 여성들의 표상이 왜 의외로 현모양처주의로 귀결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준다. 과학적 담론으로 들어온 '여성성'의 담론, 그리고 지식으로서의 '가정학'의 존재는 그들에게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합리적 광채를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화』에는 이러한 담론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 담론들도 존재하여 이들의 열망이 매우 다채롭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교지 『이화』를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40) 이상 가사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전미경,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집, 2004.9 참조.

41)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의 매호마다 문학 예술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임정혁,「문예부흥의 신정신」(1집), 신백희,「우리古文學에 대하야」(2집), 김신복,「리히아드 박너의 일생(一生)」(2집), 모윤숙,「근대로서아문예사조」(3집), YCH,「톨스토이의 생을 통하야」(5집)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당대 문예가 여학생에게도 근대적 지식 체계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주수원,「생명의 연장선」(2집)과 같은 생물학적 지식이나, 임정희,「근세사회사상의발생」(3집) 등 철학에 관한 글도 자주 보인다.

이들은 이 지식들을 수업에서 배우거나 문학부가 주로 진행해 왔던 독서회 등 과외활동에서 습득했을 것이다. 이화 여전 학생들은 경성제대나 연희전문 등 타전문학교 학생들과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열린 독서회 토론회 등에 참석했다고 한다.[42] 梨專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孫仁實	現代敎育과 知能檢査	3집	1931.3.4
宋孝善	堅實한 訓育의 必要	3집	1931.3.4
樹州	實際的 家庭 食療法	3집	1931.3.4
순이	營養素에 對하야	3집	1931.3.4
元英子	敎育への感	3집	1931.3.4
一石	敎育은 生活의 基礎(本文譯)	4집	1932.10.31
一石	우리의 要求하는 兒童敎育은	4집	1932.10.31
任貞爀	家庭에 常備할 藥品과 器具	4집	1932.10.31
ㅈㅊㄱ	智慧의 家庭	4집	1932.10.31
張永淑	乳兒營養의 實際問題	4집	1932.10.31
田淑禧	우리 家庭에 適當한 洗濯法	4집	1932.10.31
田淑禧	家事專門이아기	4집	1932.10.31
田淑禧	菜食과 肉食	4집	1932.10.31
鄭光鉉	一般 朝鮮 飮食의 獻立表	4집	1932.10.31
平井政愛	體育의 目的과 價値	5집	1934.5.31
	幼兒指導問題	7집	1937.6.12
	朝鮮式 住宅의 長處短處及 改良方針	7집	1937.6.12
	家事敎育에 對한 나의 쪼각생각	7집	1937.6.12
	營養과 經濟	7집	1937.6.12
	病後數題	7집	1937.6.12

42) 모윤숙, 앞의 책 참조.

서 자신이 읽고 토론한 지식들을 교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 역시 당대의 선진적 지식인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증표로 자부심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전문적 지식의 수용자로서 자기의 지식체계를 완성해가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기독교 학교가 서구적 지식체계를 전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교육의 장이었던 만큼 교지 『이화』에는 '문예부흥', '기독교', '서구 과학 사상' 등 서구적 담론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우리 고문학에 대한 담론 등을 통해서 논리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글도 보인다.

임정희의 「근세 사회사상의 발생-간단한 소개」이란 글은 부제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 사회주의의 임무는 총명한 두뇌에 의한 이상사회건설에 있지 않고 유산계급무산계급의 계급대립을 야기(惹起)시킨 역사적 경제적 사정을 검사하여 계급대립을 폐지시킬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는 선악의 윤리적 동시로 비판할 것이 안니라 다만 자본주의생산조직은 사회진화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생긴것이요 봉건제도에 비하연 인류에 큰 공헌이 있는 것이나 자본주의의 발달이 어떠한 계급에 니르면 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또한 필연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이다[43].

이 글은 각 장을 각각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사회개혁사상의 발생, 공상적사회주의及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누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공상적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사회주의의 '수많은 분파'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맑시즘)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

43) 임정희, 「근세 사회사상의 발생-간단한 소개」, 『이화』 3집, p.11 참조.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 태도는 당대 梨專 학생들이 사회주의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그들은 '사회주의'를 자신들이 습득해야 할 교양, 하나의 전위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검열이 있었음에도 이 글이 지면을 얻은 것은 바로 이 객관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한 프로문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도 보인다.

> ...근일 푸로문학도 역시 그들의 제창한 바 일개의 문예적 타입으로써 무산계급에 대한 동정과 투쟁적 의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현실생활을 토대하지안은 예술은 무용물이라는 결론을 나릴만치 로시아의 문예는 공상에서 실제로 귀족적 聖像에서 평민적 생활을 뚜르고 전진하야 나려왓다. 그리하야 광막한 공상에 가공적 몽상만으로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든 문예는 필연적 운명으로 몰락과정에서 신음하고 있다[44].

이 글은 프로문학이 지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옹호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프로문학을 로시아문학의 한 일파로 '귀족적 성상', 혹은 '가공적 몽상만으로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든 문예'를 '뚜르고 전진하야 나려왓다'고 소개하면서, 프로문학의 성립 과정을 '공상에서 실제로', '귀족적 성상에서 평민적 생활'로의 발전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현실생활을 토대하지안은 예술'에 대해 비판하고 '무산계급에 대한 동정과 투쟁적 의식'을 주장하는 프로문예에 대한 설명도 정확한 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문예를 '일개의 문예적 타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필자가 프로문예를 자신의 주체적 이념으로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은 필자가『이화』에서 다루었던 문학에 대한 여타의 글[45]들

---

44) 모윤숙,「근대로서아문예사조」,『이화』3집, p.21 참조.

처럼 문예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었다.

물론 『이화』인들에게도 사회주의 혹은 프로 문예가 실천적 이념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윤숙의 회고에 의하면 그들은 경성 시내의 고보 남학생들과 독서회를 가졌다고 하고[46], 당대 고보생들 독서회의 주요 교재가 사카이 도시이코(堺利彦),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오스키 사카에(大杉榮) 등 일본 좌파 사상가들이 쓴 이념서들이었다는 점을 볼 때[47], 梨專 학생들 역시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형상에 매료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단지, 검열의 강도가 매우 강했던 교지라는 특성상 『이화』를 비롯하여 식민지 시대 어떠한 교재에도 사회주의가 실천적 이념으로 주장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이 글들 이외에 『이화』에 실린 논리적 글에서는 이념적인 담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검열 문제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梨專이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기독교의 이념, 특히 여성 기독교 교육의 이념은 학생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고[48] 이러한 점이 교지에도 그대로 투영된 듯하다. 물론 같은 기독교 학교인 연희전문의 교지 『연희』의 경우 그 주요 내용이 기독교와 사회주의였던 점[49]은 참고할 만한 점이지만, 이러한 현상도 30년대 발간되었던 『이화』에 반해 『연희』가 상대적으로 검열의 강도가 약했던 문화통치기 20년대에 발간(1922~1931)되었던 점을 고

45) 모윤숙의 글 중 문예에 관한 것은 「詩人 Robert Burns의 略歷」(2집), 「근대로서 아문예사조」(3집), 「철학과 문예」(4집)이다.

46) 모윤숙, 『나의 회상- 폭풍 속에 피는 꽃』, 앞의 책 참조.

47)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研究 : 1920-30年代 高等普通學校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48) 임희숙,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개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p.212 참조.

49) 박헌호, 앞의 글 참조.

려한다면 이 문제 역시 주체가 남녀 고보생이라는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당국에게 1930년대에도 사회주의는 여고보생들에게도 막아야 할 지식의 파고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이 글들 역시 이 지식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내는 데 그치고 새로운 담론으로 생산해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연희』의 교지의 글들 역시 이러한 수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때, 이는 梨專 여학생들의 한계라기보다는 당대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수준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이화』가 수용하고 있는 여러 지식 속에는 그 다양성처럼 모순된 무늬결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러한『이화』내부의 그 다양한 무늬결은 '문학란'에 실린 작품들 속에서 고뇌하는 주체의 내면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형상화된다. 여기에 '문학란'의 의미가 있다.

4.2 '탈주의 선'으로서의 '문학'- 주체적 존재성에 대한 고뇌

서론에서 제기한 대로『이화』의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문학란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 여타의 교지들이 그랬던 것처럼『이화』발간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문학란의 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학란의 중요성은 양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이화』의 문학란에 실린 글들은 질적인 면에서 고른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신여성』등 다른 여성잡지에 실린 독자투고작의 수준은 뛰어넘는 편이다. 시와 시조의 경우는 고난이도의 기교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완급을 조절하는 능력이 보이기도 하며 특히 소설의 경우는 기성 작가 못지 않은 수준을 이룬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작품이 당대 남성 필자들이 평가하는 '센티멘탈리즘'이라는 문학소녀적 취향이나 수준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심지어

『이화』에는 '현상문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성과도 있었다[50]. 이는 그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명한다. 『이화』 문학란의 이러한 수준은 문단 진입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51].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문학란에는 여타의 기사(논설)에서는 볼 수 없는 주체의 진지한 고민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삶의 희열에 대한 원초적 열망이거나 주체의 존재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 나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주인이다. 나의 발자취 떼여놓는 곳마다 떠돌든 행운은 나를 따르며 사랑은 나를 에워쌋는다. 또 이 산 저 산을 넘는 길엽헤 명성은 나를 긔다린다.
>
> 사랑 행복 명성 이 모든 친구들과 끗업는 여행으로 못간 곳이나 가본곳이나 인간을 차저다니느라면 화려한 건축이 즐비한 도시 뭇새의 울음이 山野를 흔드는 한적한 전원에도 간다. 끗업는 침묵 속에서 한거름 또 한거름으로 어느듯 大海와 사막을 지나 또 한곳 차저가면 그곳은 窮村이라 오막사리집들이 둘너섯다. 또 이곳을 지나 상인의 외치는 소래가 들네이는 시장과 궁전에도 간다.
>
> 나는 이 여러곳으로 다니면서 문마다 쑤드리고 외치기를 「나는 긔회다」라고 한다. 잠드럿거든 깨여라. 만약 잔채하거든 내 가기 전에 罷하여라. 지금은 네의 운명을 정하는 시간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하는 모든 지위에 오르고 또는 죽엄 외에는 모든 원수를 이길 터이다.
>
> 그러나 나를 의심홈 저주하는 사람은 엇절수업시 실채에 붓들녀 비애와 빈궁에 빠진다.
>
> 나종에 공연히 나를 쓸때업시 차즈면 나는 대답 아니할 터이요 또다시

50) 『이화』 7집에는 현상문예작품 당선발표가 있다. 여기서 1등 시-신진순, 이의영, 이봉순, 수필-최원복, 주경은, 이은미, 소설-김창덕이 당선되었다. 심사위원은 김상용, 이태준, 이희승이었다. 여기에는 심사평도 실려있어,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도 충실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화』 7집, p.91 참조)

51) 예를 들어 노천명은 32년 변영로 편집장인 『신동아』지에 梨專 은사 김상용의 소개로 「밤의 찬미」, 「포구의 밤」 등 시를 게재하게 되면서 문단에 주목을 받게 된다.

도라오지도 안을 터이다.[52]

위의 시는 주체적인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첫 번째 시는 '사랑, 행복, 명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운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 기회는 열심히 찾는 자에게만 온다. 기회를 기꺼이 찾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하는 모든 지위에 오르고 또는 죽엄외에는 모든 원수를 이길터'라고 하는데, 이 희망은 늘 욕망을 억압해야 했던 당대 여성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이들은 그만큼 삶의 행복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고 이것을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삶에 대해 던져보는 존재론적 대결의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와의 대결에서 자신들이 넘어야 할 장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소설에서는 현실적인 장애에 대한 고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죄가 잇다면 오직 약자로 태여난 그것이 죄일것이다. 그는 오히려 우리네들보다도 순결할 것이다. ...그러면 참 죄인은 누구일가? K는 봉이를 둘너잇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보앗다.'[53]

인용한 소설은『이화』창간호에 실린 소설「누구의 죄?」이다. 이 소설은 '봉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K라는 여학생의 시선을 통해서 서술한다. 이 소설의 화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민며느리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핍박받다가 급기야 일본에 팔려가는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봉이에게 같은 여성으로서 깊은 연민을 느낀다. 이 구절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

52) 쎈쌀쓰 원작, 유정옥 역,「기회」,『이화』2집, p.138 참조.
53) 목화,「누구의 죄?」.『이화』1집, p.184 참조.

하고 감싸안으려는 화자가 급기야 봉이가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혀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광경을 접하고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장면이다. '죄가 잇다면 오직 약자로 태여난 그것이 죄일것이라는 절규는 당대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며, 오히려 '참 죄인은', '봉이를 둘너잇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는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 있다. 물론 K가 봉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동정적이며 그에 대한 태도는 시혜적이다. 이는 당대 엘리트 여성들이 억압받는 여성, 특히 구여성들에게 갖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성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성들 간의 정서적인 연대 의식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다.

이 소설이 신여성과 구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다음의 소설은 우정어린 시선으로 신여성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다음 소설에서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가로막는 질곡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 시선이 드러난다.

> 가끔 그는 잡지에 수필 같은 것도 발표하였으나 그 당시 吉이는 신문 현상소설에 당선이 되겠다는 욕망으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장편을 쓰고 있었다. 영화에는 거진 광이 되리만 하였고 화장술에 대한 지식과 방법도 웬만한 미용사에게 지지 않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수많은 남성들이 픽으나 흠모하고 뒤를 따랐다. 그러나 남성에게 대해서도 별다른 수치심을 갖지 않은 그는 극히 평범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해주었다. 남자뿐아니라 여자동모들도 그를 몹시 따랐으며 나 역시 그를 따르는 동모 중의 하나이였다. ...우리는 가끔 앉어 서로 허무한 꿈도 많이 만들어 봤고 또 그의 남다른 포부와 야심도 귀에 젖도록 들어봤다. (144)
>
> 그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의 공포를 철저히 느끼는 듯하였다. 「나는 인제 모든 이상과 포부가 다 끊어저바리는 것만같애...」(146)

'못만난 일년동안에 그의 모양은 몹시도 변하였다. 얼굴은 초최하여지고 옛날에 보든 그 무사기한 우슴은 그림자조차 엿볼수 없었다. 그러나 몽굴몽굴한 귀여운 애기를 들여다보며 그의 야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떠오르는 듯 했다'(147)

'자기자신을 망각하고 희생적인 모성애에서사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러나 길이가 그다지도 속히 자기자신을 망각하고 희생해버릴 줄이야, 그는 벌서 책상압에서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실편시키고 하나의 사회인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려 노력하든 길이는 아니고 부엌에서 귀여운 아들의장래의 성공을 위하야만 염려하고 계획하는 吉이가 되었다. 인정한 변한다. 그리고 길이 역시 평범한 하나의 모성이엿구나. 가는 햇발이 아즉도 따뜻이 끝없는 추억에잠기여 있는 내몸을적시여주고 있다[54].

이 소설은 梨專 출신 여성작가인 전숙희가 창작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과 화자는 여학교 친구사이로 서로의 '남다른 포부와 야심'을 마음으로 터 놓는 사이이다. 특히 주인공 吉이는 남들이 다 흠모해마지않는 뛰어난 여학생이다. 그녀는 '신문현상소설에 당선되겠다는 욕망으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장편을 쓰는' 열정적인 문학소녀였다. 그런데 이렇게 꿈많은 길이의 삶에 '결혼'이라는 장벽이 나서는데, 이는 '모든 이상과 포부가 다 끊어바리는 것만같'은 불길한 일이었다. 그 예감대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려 노력하든 포부가 큰 '신여성' 吉이는 이를 포기하고 대신 '신가정'의 주인이 되고 만다. 결국 그녀는 결혼으로 '얼굴은초최하여지고 옛날에 보든 그 무사기한 우슴은 그림자조차 엿볼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대신 길이는 곧 이 '야윈 얼굴'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존재. '몽글몽글한 귀여운 애기'를 얻고는 예상외로 또 다른 현실적 존재성을 수락한다. 이에 필자는 결국 예전에는 자신의 모범으로 흠모했던 길이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길이 역시 평범한 하나의

54) 전숙희,『코스모스』,『이화』7집 참조.

모성이엇'다는 점에 비애와 배신감을 느낀다.

이 소설은 당대 여성들의 자기 실현의 욕망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을 통한 안락한 삶과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가야할 험란한 가시밭길 사이에서 당대 지식인 여성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 속의 吉이처럼 결혼이 자신들의 꿈을 꺾을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신여성들의 삶에 문제의식을 던진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앞에서 인용한 논설문의 대부분이 '결혼은 꿈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점과 대비된다. 논설문의 필자들은 똑똑한 여성은 사회적 책임과 가정 내의 책임 모두를 이룰 수 있다고 관념적인 사변으로 논하는 데 비해, 이 소설의 화자는 당대 지식인 여성들이 결혼제도에 의해 꿈을 버려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 비애를 느낀다. 이처럼 이 소설은 모성성과 자아 실현 사이의 갈등이라는 매우 첨예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밖에 『이화』에 실린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등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나무닙 우수수 떠러지는 달밤/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아는 이 하나 업는 그곳으로/오라는 사람도 업건만은/약속이나 직히는듯이 떠나가네/정든 이 강산이 떠나긴 실치만/한거름 한거름에 눈물을 뿌리며/낫서-ㄴ 북쪽나라로 그들은 떠나네!/행여나 그곳엔 살길이 잇쓸가하고/그 아레 그들의 그림자야말노/처량하기가 끗이 업고나![55]

이 시에서는 '강산이 떠나기는 싫지만', '눈물을 뿌리며', '북쪽나라로

55) 玉影, 「떠나는 그들」, 『이화』 3집, p.139 참조.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화』에 실린 다른 일부 여타의 시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는 여성으로서 가정 내의 자기 본분을 다하고 단지 여성교양교육에만 힘을 쏟으라고 말하는 이들의 논리와도 다르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이화』에는 이념을 다룬 작품도 존재한다. 모윤숙의 소설 「繼承者」(『이화』 3집)에는 이념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외에 그녀를 둘러싸고 동경유학을 다녀와서 "'理論'과 '主義'의 갈등"에 빠져있는 두 청년이 등장한다. 그 중 한 사람 혜식은, '동경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어듸까지던지 현실을 거울삼어 생활을 구체화식히려하'던 일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념을 '쓸데없는 표면적 이론'이라고 여기고 '꾸준한 운동을 계속하기에는 내 몸이 피로'하다며 향락적이고 속물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젊은이다. 이에 반해 청년 정철은 이러한 그의 친구가 '봉건적 유물인 재산'에 눈이 멀어, '사치한 머리'를 가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결혼도 마다하고 이념을 실천하고자 농촌에 투신하는 건실한 활동가이다. 이 두 주인공은 서로의 입장 차이로 결별을 하게 되고, 이들의 죽은 옛동지 태영의 누이인 주인공 태선과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한편 고무공장 사무원 태선은 정철이 보기에 '생각있는 여성'(155), '둘도 없는 女性同志'(156)이다. 굳이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녀가 '여성이면서도' '시대를 분별하고 활동하는 적극성을 소유한' 점에 있다. 이렇게 '여성이면서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두 청년의 생각 저변에 여성은 '정신생활의 방해물'(154)로 이미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동지로 인정했던 정철마저도 '그도 나의 동지로 굳은 맹세를 한때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맘을 누가 믿어 혜식이 같은 굿은 남자도 물질에 눈이 어두어 동지의 뜻을 저바리거든'(155)이라면서 그

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두 청년을 포함하여, 여성 주인공마저 내면화되어 있는 여성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굿건한 정신 그대로 길녀주싶시오. 태선씨만은 모든 남성이 희롱하는 광주리에 일원이 되지 마시고 혁명적 새 여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의 속 깊이 바라는 원임니다' 「네 깊이 기억함니다. 우리는 갖이 싸호는 사람인 만큼 다른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없겠지요」, 「물론이지요 여성이라고 약하다는 선입주관을 가져서는 안되겠지요. 요사이로 시아 코론타이여사갓흔 이는 진보파의 일 여성으로 그 주장이 시대를 놀래일만하든데요. 여성은 수집고 얌전한 것으로만 남성의 호기를 끌든 시대는 벌서 세기전 일임니다」, 「현실을 짊어지고나가는 산여성들이 태선씨를 비롯하여 조선에 배출될 줄 암니다」[56]

> '엇전지 태선은 여성으로서의 미를 남자 앞에서 완전히 발휘할 줄은 모르는 여자야, 요새는 웬일로 모양도 안내고 맞나면 인도의 깐듸가 잡혓느니 운동단체가 엇더니하고 이론만 상당하지 여자는 제아모리 떠들어도 남성의 쾌락이외의 노릇을 한다면 벌써 남자의 사랑을 받을수가 업는 거시다'

전자의 인용구는 정철이 '농촌으로 도라가 피폐한 농촌을 살리자'는 동지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떠나기 전 태선과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다. 후자는 변절한 혜식이 잠시 연인으로 삼았던 태영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두 인용구에는 '수집과 얌전한' 여성과 '현실을 짊어지고 나가는 여성', 또 '쾌락'의 완롱물로서의 여성과 혁명적 일꾼으로서의 여성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적 여성상은 당대 인텔리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품고 있었던 이중적 가치관을 잘 표현한 것이다. 물론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혁명적 여성이 곧 이 시대의 주요한 모범적 여성상으로 제시

56) 모윤숙, 「계승자」, 『이화』 3집, pp.157~158 참조.

되어 있다는 데 그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철의 집에 놓여 있는 '맑스전집과 문학전집'이 표상하는 바와 서로 통하는 바이다. 작가를 비롯하여 梨專의 여학생들은 독서 경험을 통해서 이념을 접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념의 주체, 실천의 주체로 여성상을 세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여성의 주체성은 인물들 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동안 다소간 훼손된다.

「계승자」에서 주인공 태선은 정철이 떠난 다음 잠시 혜식의 연인이 되어, 속물적 세계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역시 여성은 '약한 존재'라고 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정철의 편지를 받고는 깊이 반성하게 된다.

> 태선을 스사로도 알지 못하게 가삼이 떨였다. 넷날 정철이의 광채잇든 눈과 엄숙한 설교가 지금 자기 양심을 똑바로 건너가보고 있는 것 갓햇다. 엷은 편전 우에는 비밀 먹음은 눈물이 수없이 떠러진다. 아 내가 믿엇다. 정철은 정의와 선을 위하여 물과 불을 헤아리지 안는 조선의 귀여운 투사이다. 이맘을 엇이 할까? 정신을 정철이를 따르고 눈은 혜식의 부를 짜럿다.(158)

태선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이념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빠 혹은 정철이라는 남성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된다. 그녀는 정철의 실천을 '신성한 사업'(157)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나서 그녀는 반성을 하게 되고 혜식에게 "저도 혼을 가진 여성이여요 당신의 너절한 씰-크 햇을 이 적으마한 손으로 몃개라도 정복할 수 있는 산여성이여요"(159)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철을 따라가서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며 태선은, '오늘은 동 내일은 서 이 몸이 찌저지고 없어저도 한 많은 조선의 땅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이 눈물을 다 밧

처 이 땅을 끌고가는 계승자가 되어보리다(162)'라고 맹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여기서 현실을 짊어나갈 여성은 남성의 '계승자'로, 모범적인 남성의 욕망의 중계를 통해서야 스스로의 존재성을 찾는 존재였다. 즉 그녀는 스스로 이념을 받아들이고 존재성을 투기하는 주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념적 실천에 대해 고민하지만 정작 주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이 부족하다. 작가는 이념의 주체는 되고 싶었지만 정작 그 이념이 표방하는 바 민중의 억압적 현실과 그 해방의 방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가서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이념을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관념적이었다는 것, 즉 단지 당대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진보적 지성인의 형상을 동경한 데 지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화』의 문학란의 한계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노천명의 소설과 시의 경우는 모윤숙이나 전숙희의 소설에서 보이는 사회적 주체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설 「일편단심」에서는 모성성에 대해 긴박되어 있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주인공인 딸 은실은 자신의 부양을 위해 재혼이라는 안온한 선택을 거절할 채 희생한 엄마의 모습을 '그의 일생은 짤엇쓰나마 성결한 가치잇는 생애엿다'고 표현한다. 물론 그녀가 바라보는 희생적인 모성 예찬은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여성들의 사회적 욕망을 희생시키기 위해 모성을 찬양하는 남성들의 관념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어머니의 그 성스러운 모성이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욕망을 희생하고서야 가능했다는 점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화』의 문학란에 실린 문학작품들은 당대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반 기사들과 달리 자신들의 주체적 욕망을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화』 문학란의 성격은 식민지 시대 여성들에게 '문학'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당대 여성들에게 문학은 자신의 욕망을 풀어내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창구였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문학이라는 영역은 다른 데 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 혹은 그밖의 문화적 제도적 차원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 즉 계급적 토대나 한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입문이 가능한 열린 시장[57]으로서, 당대 청년들의 계층 상승에의 욕망을 풀어내는 데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매체의 현상문예제도에 몰려드는 당대 청년들의 열의나, 1920년대 '최고의 신랑감이 문인'이었던 형편은 이러한 욕망을 반영한다. 당대 문인은 전위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하물며 남성들에게도 그러하였는데, 늘 편견과 차별에 시달렸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욕망이 어떠하였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화』의 문학란이 갖는 수준과 비중은 이러한 점에 기반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문학작품에는 상대적으로 검열의 칼날이 무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근대 초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걸쳐 문학은 그 고유의 영역을 넘어 가장 첨예한 사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들에게도 문학은 첨단의 공간으로 가장 진보적인 입론을 풀어낼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끊임없이 보수적인 사회적 담론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던 교사 김활란의 논설에 비해 문인을 지향했던 모윤숙이나 전숙희의 작품은 의외로 주체적이었다. 교육제도가 제도권의 담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곳이라면, 문학은 이와는 다른 세계일 수 있었다.

---

57)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증거는 박헌호, 「식민지 조선에서 作家가 된다는 것 - 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7집, 2006.6. 참조.

그리고 『이화』 문학란에는 매우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화』에 실린 작품들 중 시조나 수필 혹은 시 전반은 위의 작품들과는 다소 다른 경향이었다. 시와 시조에서는 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절제된 표현으로 애상적 어조 속에 표현되고 있다. 수필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내면적인 감상성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허망한 한탄이 아닌, 고뇌하는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오히려 정작 남성작가들이 비판했던 소위 '여성성'이라는 센티멘탈리즘적인 성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들의 세계관이나 역량의 탓이 아니라, 시조, 수필, 혹은 시(모더니즘 시를 제외한)가 추구하는 장르법칙이 그러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 장르는 문단에서 장르의 계열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정서적인 혹은 낭만적인 혹은 내면적인 것으로 규정된 장르들이기 때문이다. 유독 소설 장르에서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가장 잘 드러난 점도 이와 관련이 깊은 문제일 것이다.

5. 결론 - 의의와 한계

이상으로 본고는 교지 『이화』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1929-1938) 당대 최고 인텔리 교육의 수혜자인 지식인 여성들이 지향했던 자기 정체성과 그들이 수용하고 재생산했던 지식과 이념의 형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이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화』는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꾸려가는 매체, 교지라는 특성상 식민지 시대 제도 교육이 당대 인텔리 여성들을 어떻게 구성해갔으며, 또 주체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지 『이화』의 필자들은 소수이지만 이후 『여성』, 『삼

천리』, 『조광』 등 30년대 주요 매체의 필자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근대 여성 지식 수용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화여전 여학생들은 최고 여성 교육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만큼 민족(사회)에 대한 의무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기독교 여성 교육이라는 환경 아래 그들은 금욕주의적 인격과 사회에 대한 자기 희생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신여성들을 '사치와 허영'으로 비판하고 자신들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그들은 전위적 지식의 생산과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화』에 실린 수준 높은 글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화』에 실린 논설을 살펴보면 그들의 지식 수준은 상당한 것이었다. 이들은 교지 『이화』를 통해서 가정학, 과학, 문예, 사상 등 다양한 지식체계를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갔다. 그리고 교지 『이화』는 지면을 통해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물론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유로운 열망들은 3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성을 규정하는 생물학적 담론과 가정학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보수적 성적 담론과 현모양처 사상에 의해 굴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여성성, 특히 모성성을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남성들과 동등하게 '협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자아 실현에의 욕망 역시 버리지 못해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화』에 드러난 다른 지식체계들, 즉 사상, 문예 등의 새로운 담론을 수용함으로써 현모양처 담론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길을 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이 지식을 수용하는 태도는 그다지

주체적이거나 생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화』에 실린 글들의 내용은 첨단의 근대적 지식이기는 했지만, 그 글쓰기 방식은 단지 지식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듯하다.

이는 필자들이 현재 학습을 진행 중인 학생이라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으로서 그들 능력의 한계는 지식을 수용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담론으로 생산해내기에 다소 역부족이었다.

검열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특히 점차 검열의 수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높아가는 30년대 상황에서 저항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수용된 이론적 담론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 시대 교지 전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이다. 또한 학교, 특히 여학교라는 제도 내의 공간에서 생산되는 담론이었던 만큼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내부적으로 글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화』에서는 1930년대 중반에 일기 시작한 민속학 등 민족주의적 문화담론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역시 『이화』가 갖고 있는 한계로 당대 학문적인 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등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제국대학 발행의 『신흥』에서 국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은 이와 비교되는 점이다. 물론 대신 『이화』에서는 '가정학'이라는 학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근대적 고등 교육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1930년대에 이미 학문 분야에서도 성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 수준이나 욕망이 남성 지식인들 못지않은 다양성과 깊이를 담보하려고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문학란의 작품들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온다. 문학에는 논설문에서는 드러났던 순응적 담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존재에 대한 치열한 모색이 돋보였다. 이는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진보성을 증명해주는 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매우 다양한 욕망들을 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당대 여성들에게 잔인한 현실에 연민을 품기도 하고 결혼과 자아실현의 길이 모순된 길이라는 점에 고뇌하였다. 민족적 현실에 안타까워하였으며 이념적 주체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고민하는 이념이나 당대에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지향했던 주체성 역시 대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배제된 것이었다. 즉 민중을 위해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방도로써 이념을 선택한 듯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들의 성취와 한계는 30년대 지식인 여성들이 지향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든다. 그들은 지식과 이념의 수용자 혹은 생산자가 되고 싶었고, 헌신적인 사회적 주체가 되어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고 한들,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리고 주체적인 한계도 있었다. 그들의 사회적 존재성에 대한 욕망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사회적 일원으로 편입되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다. 최고 인텔리 교육을 받더라고 현실 속에서는 남성들과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미 그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회적 주체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다소간 굴절된다. 당대의 제도적 담론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얼마간은 자발적으로 순응해 나간다. 그들은 자신의 배움과 의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사회적 권력과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구현해왔던 주체들이었다[58]. 그리하여 이들의 욕망은 이후에 이들

58) 정미경, 「일제시기 '배운여성'의 근대교육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0 참조.

중 일부가 교묘한 신민화 논리에 노출되고 이용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식민지 시대 기독교 여성 교육, 인텔리 여성교육의 공과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화』 7집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친일의 논리는 이를 증명해준다. 이는 다음에 또 다른 지면에서 살펴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지 『이화』의 성과와 한계는 이후 졸업생들의 활약으로 일간지, 잡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생산된다. 가정학이라는 지식 체계와 과학적 모성 담론 등이 일간지 가정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은 그 예이다. 결국 교지 『이화』는 한국 근대 여성들이 지식을 수용하고 재생산해 나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교지- 『이화』, 『연희』, 『신흥』 『배화』 등

잡지- 『신여성』, 『여성』, 『신가정』, 『삼천리』, 『조광』 등

2. 논문 및 단행본

김미영, 「1920년대 신여성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나혜석, 김일엽,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 1994.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공개장과 좌담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6, 2004.

김연숙, 「저널리즘과 여성작가의 탄생 -1920~30년대 여기자(女記者)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 2005.

모윤숙, 『나의회상-폭풍 속에 피는꽃』, 중앙출판공사, 1987.

박철희, 「植民地期 韓國 中等教育 硏究 : 1920-30年代 高等普通學校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박헌호,「식민지 시기 校誌의 위상과 지식의 주체화-『연희』를 대상으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중점과제 학술발표회,『한국 근대사회의 변동에 대한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제2과제 ;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발표문, 2005. 6. 18.

박헌호,「식민지 조선에서 作家가 된다는 것- 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상허학보』17집, 2006. 6.

심진경.「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상허학보』13집, 200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신여성-매체로 본 근대여성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오문석,「식민지시대교지(校誌) 연구(1)」,『상허학보』8집, 상허학회, 2002.

이희경,「1920년대 "여학생"의 사회적 표상 -잡지『신여성』을 중심으로」-『한국교육연구』10집, 2004.

임희숙,「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개신교」,『한국기독교신학논총37』, 2005

전미경,「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현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현모, 되고 싶은 양처」,『한국가정관리학회지』22권 3호, 2004.

전미경,「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 1930년대를 중심으로」,『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16집, 2004. 9.

전미경,「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니 교육을 중심으로」,『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17권 2호, 2005.

전언후,「일제시기 여학생 의식 연구」,『이화사학연구』29, 2002.

정미경,「일제시기 '배운여성'의 근대교육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2000.

Abstract

Study on *Ewha*, School Journal, in Colonial Era

- Intellectual Women's Acceptance of Self Representation and Knowledge

Park, Ji-Young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intellectual women in colonial era (1929-1938) pursued their self identity and how they accepted and reproduced ideas and knowledge through a school journal *Ewha*. *Ewha* was virtually the only medium that intellectual women could express their own opinions in colonial era. Other media were all male dominated that it was almost impossible for women to give voice to their opinions through the media. As *Ewha* was the female dominated journal, *Ewha* is a good source to look into two aspects: production of intellectual women by the colonial education and those women's reaction. Although the number of journalists at *Ewha* was small, they later took journalist positions at major media such as *Women*, *Samchunri*, and *Chokwang* in the 30s. Considering these, it is right to say that *Ewha* served as a medium that enabled Korean women in modern times to accept and reproduce knowledge. Thus *Ewha* is worthwhile to examine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intellectual women's acceptance of knowledge.

It was seen through *Ewha* that the students at Ewha Women's College had a very high opinion of themselves that this made them feel an obligation to help their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a longing for

success. They, for example, felt responsibility to enlighten uneducated women. They adapted an attitude of asceticism and self-sacrifice, deeply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at Ewha Women's College, a mission school. They also displayed self-confidence that they could accept and produce advanced knowledge. This is seen in the high quality writings in *Ewha*.

They accepted and reproduced various knowledge such as domestic science, physics, literature and ideologies through *Ewha*. However, by the mid 30s, their acceptance of the ideologies of 'angel in the house' and female sexuality were shown in domestic science as well as biological discourse. Moreover, they were obsessed with the idea of being a 'superwoman' as they could not totally abandon the desire of personal fulfillment.

Furthermore, the way the intellectual women accepted knowledge seemed to be neither productive nor active. The articles in *Ewha* showed their advanced knowledge but unfortunately they did not go further other than conveying objective knowledge to the readers. The academic inclination toward 'domestic science' in *Ewha* was a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distinguished it from *Yeonhee* or *Shinghung* whose main discourses were political ideologies and cultural nationalism. This shows that the division of sexual realms existed in academic studies as early as the 30s.

Despite all those negative aspects of Korean intellectual women in colonial er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ir knowledge and ambition were as wide and strong as those of male intellectuals. Their literary works are a good example. The passive discourse viewed in articles was not seen in literary works. Rather, they depict the vigorous pursuit of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which reveals the progression of colonial

literature. Overall, Korean intellectual women in the 30s ceaselessly pursued knowledge in wide range of subjects.

Key words : Ewha, Ewha women's college, intellectual women, acceptance and reproduction of modern knowledge, ideology, self identity, desire, asceticism, the consciousness of enlightenment, angel in the house, domestic science, writing, literature, progression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